즉시 배포용: 8/31/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가 뇌졸중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한 연방 정부 보조금 미화3백75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 조달 발표

뉴욕주에서 뇌졸중은 주된 사망 원인 중 4위이며 매년 6,000명이 넘는 인구가 뇌졸중으로 인해 사망함

주지사 Andrew M. Cuomo가 뉴욕주에서 5년 동안 질병 통제 예방센터로부터 이미 미화3백75만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받았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보조금은 뇌졸증 치유 및 에방을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뇌졸증은 뉴욕에서 주된 사망 요인 중 4위이며 매년 6,000명이 넘는 인구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뇌졸증은 뉴욕에서 계속 주된 사망 요인 및 장애로 되고 있지만 현재 생존 및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유법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지사 **Andrew M. Cuomo**가 한 말입니다**.** "이 자금은 계속 제공되고 있으며 건강 관리 시스템에 더 많은 인면 구조 예방책을 통합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보조금을 이용하면 뉴욕주 보건부에서 급성 뇌졸중을 위한 병원 내 치료를 향상하기 위한 연방 보조금을 통하여 2012년에 생성된 기존의 뉴욕 Coverdell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커뮤니티 교육, 응급의료 및 치료 중 이동과 고혈압, 흡연, 고콜레스테롤과 열악한 약물복용과 같은 뇌졸중 위험 요소에 대한 성장 중 프로그램의 요소가 포함됩니다.

게다가, 이 자금은 구급차로부터 병원으로 이동 중 치료와 병원으로부터 집까지의 환자 이동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그 목적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 재입원과 장애를 줄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뉴욕 주 보건 국장 박사는Howard Zucker가 말했다. "저희는 뉴욕에서 주된 장애 및 고통의 원인이 되는 뇌졸중을 치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방 자금 지원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때에 올바르게 치료를 받을 경우, 많은 뇌졸중과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을 이용하면 바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은 Paul Coverdell 국립 급성 뇌졸중 프로그램으로부터 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받고 있는 9개 주에 속하며 현재 주의 5개 지역 내에서 뇌졸중을 위한 종합 치료 시스템을 궁극적으로 개발하게 될 5년 프로젝트의 중간 단계에 처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은 급성 뇌졸중으로 인한 병원 치료 요소에서 현저한 개선을 이루었고 특히 조직 플라스민노겐 활성 인자라 부르는 FDA 인증 치료를 제때에 해결한 건이 41.3%로부터 61.3%로 증가하면서 현저한 효과를 보게 되었다 합니다.

2013년, 뉴욕에서 43,000건이 넘는 뇌졸중이 발생했습니다. 뇌졸중과 가벼운 뇌졸중으로 알려진 일과성 뇌허혈 발작으로 인하여 해마다 49,000명이 넘는 환자가 퇴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뉴욕에서 뇌졸중 사망률이 현저히 감소된 상황이지만, 뉴욕에서 뇌졸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거의 15%가 병원에서 사망하거나 입원한지 30일이 안돼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16%에 달하는 뇌졸중 환자가 재입원을 하며 60%가 넘는 뇌졸중 성인 환자가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health.ny.gov/facilities/hospital/stroke_centers/stroke_resources.htm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